

# 화학테러 발생 시 대피 행동요령

지하철, 백화점, 공연장 등 다중밀집시설에서  
냄새·연기 또는 폭발음으로 인해  
눈, 피부가 따갑거나 어지러움, 구토 등이 발생할 경우  
‘침착하게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합니다’



## 화학테러 식별요령은?



◆ 상당수 테러이용 화학물질은 색과 냄새가 없으므로 화학테러 징후는 주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.

- 여러명의 사람들이 쓰러지거나 기침,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
-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눈이 따가운 경우
- 야외에서 새나 작은 동물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이상 증세를 나타내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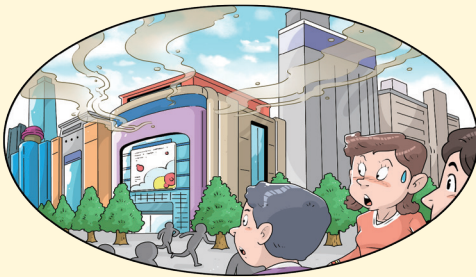
## 화학테러 발견 시에는?



◆ 화학테러 징후 발견시 즉시 **112** 또는 **119**에 인지 또는 인식한 현장상황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신고합니다.

- 물질의 냄새, 색깔 등의 특성(확인이 가능한 경우)
- 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(구토, 쓰러짐, 피부변화 등)
- 위치 및 층수(실내의 경우), 풍향, 현장 및 주위 교통상황 등
- 피해자수, 피해지역 범위, 테러수단(장비, 폭발물, 분무기 등)

## 현장 대피요령은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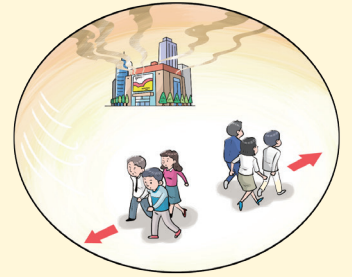
◆ **실외공간에서 테러가 발생한 경우** 기본원칙은 **높은 곳으로 대피**합니다.

- 대부분의 독성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지표면을 타고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낮은 곳 보다는 가급적 고층건물 또는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.

◆ 지하철, 백화점 등의 **실내공간에서 테러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외로 신속히 대피**합니다.

- ※ 시설 관리자는 모든 공조시설(에어컨, 히터) 및 엘리베이터의 사용을 즉각 멈추고 비상배기를 해야합니다.

## 풍향에 따른 대피방법은?



◆ 내 위치를 중심으로 테러발생 지역으로 바람이 부는 경우, **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**합니다.

◆ 테러발생 지역에서 내 위치쪽으로 바람이 부는 경우, **바람의 직각방향으로 대피**합니다.

- ※ 기상상태, 주위의 지형, 화학물질의 특성 그 자체 등에 따라 화학물질이 확산되는 범위는 다양하므로 현장관계자의 지도에 따라 가능한 멀리 대피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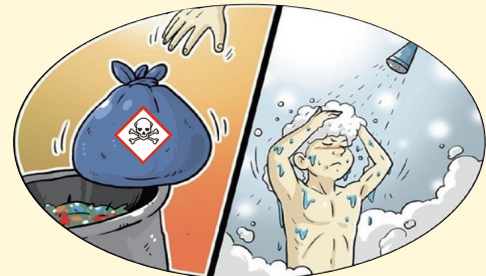
## 테러물질 노출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은?



◆ 방독면이 있으면 착용하고, 방독면이 없다면 물수건, 마스크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비닐 등을 이용해 **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** 합니다.

◆ 차량을 타고 테러발생 지역 주변을 통과할 시에는 **창문을 닫아야** 하고,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까지 **에어컨·히터 등의 작동을 중단**합니다.

## 복귀시 행동요령은?



◆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119에 신고 후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.

◆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오염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, 입고 있던 옷 등을 모두 벗고 샤워를 철저히 하도록 합니다.

◆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입고 있던 옷 등은 비닐봉투에 담아 밀봉 후 폐기하도록 합니다.

◆ 차후에라도 조속히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도록 합니다.